

항암치료 받는 친구 놀린 딸 삭발 시킨 아버지 '논란'

딸의 훈육을 위해 삭발 시킨 스페인 아버지의 훈육 방식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다.

발단은 최근 소셜 미디어에 오른 1편의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소녀가 의자에 앉아 울고 있다. 아버지는 이 발기를 손에 들고 그런 여학생의 곁에 서 있다.

이내 아버지는 결심한 듯 딸의 머리카락을 잡고 이 발기를 들어대자 어찌 바로 위까지 잘랐대던 소녀의 머리카락이 잘려 나간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지만 아버지는 결국 딸을 삭발 시켰다.

아버지가 손수 딸을 삭발 시킨 것은 훈육을 위해서였다. 딸은 최근 항암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모두



▲ 아버지가 훈육을 위해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다. 사진=trendnews.nl

빠진 친구를 '대머리'라고 놀려댔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항암치료를 받는 친구를 위로하기는 커녕 놀렸다는 게 말이 되니?"라며 화를 내면서 "너도 그 친구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한다. 그 친구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며 삭발 시켰다.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자 논란이 일었다. "딸의 잘못을 일깨워주기 위해 어렵지만 올바른 결정을 했다.",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어쩔 수 없다." 등 아버지에게 박수를 보내는 네티즌도 많았지만 "훈육이 아니라 친권 남용이다.", "학대로 고발해야 한다." 등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러시아 탱크 회사에 전화해 AS 요청한 우크라이나군



▲ 우크라이나군 장교 코체브니크가 러시아 탱크 회사에 전화하고 있다. 사진=YouTube(Military Videonews)

우크라이나군 장교가 러시아 탱크 제작회사에 전화를 걸어 전장에서 노획한 탱크의 고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한 황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2일 '포브스' 등에 따르면 이런 사실을 '코체브니크'라는 한 우크라이나군 장교가 통화 당시 내용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코체브니크는 최근 자신이 기갑 부대의 사령관이라고 사칭하며 러시아군의 신형 탱크인 T-72B3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러시아의 국영방산기업 우랄바론자보드(UVZ)의 고객센터에 걸었다. T-72B3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압축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포탑 회전도 안돼 전투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의한 것.

이에 전화한 상대가 우크라이나 군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UVZ 관계자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체브니크는 UVZ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자신을 우크라이나 제54 기계화 여단의 장교라고 밝히며 "정말 감사하다.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며 상대를 조롱하기도 했다.

포브스는 "전장에서 적의 탱크를 노획한 후 제작 회사에 전화를 걸어 작동 문제에 항의하는 코미디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탱크를 파괴하는 것 외에도 노획한 러시아 탱크들로만 구성된 부대가 있다."고 보도했다.

4,115m서 스카이다이빙한 104세 할머니

미국 104세 할머니 도로시 호프너 씨가 1만3,500피트(약 4,115m)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했다. 기네스북의 공인이 끝나면 그는 세계 최고령 스카이다이버로 등재될 전망이다. 기존 기록은 지난해 5월 스웨덴의 103세 할머니가 수립했다.

호프너 씨는 1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스카이다이브 시카고' 공항에서 소형 항공기를 타고 상공으로 올라갔다. 점프 슈트 대신 하늘색 스웨터에 검정색 바지 차림의 사복을 입었으며 귀마개도 하지 않았다. 스카이다이빙 전문가와 안전띠를 연결하고 뛰어내린 그는 시속 120마일의 속도로 하강해 약 7분 후 지상에 무



▲ 올해 104세인 도로시 호프너가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사히 착륙했다. 머리를 아래로 한 채 앞구르기를 하듯 비행기에서 내리고, 자유낙하를 위해 배를 아래로 향하는 자세 모두 안정적으로 수행했다.

호프너 씨는 100세 때 생애 처음으로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한 데 이어 두번째 도전에 나서기에 앞서 "당시에는 전문가에게 떠밀려서 낙하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주도적으로 뛰어 내리겠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다이빙에 성공한 후 그는 "나는 숫자일 뿐, 꿈을 이루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며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 정말 좋았다. 모든 것이 기쁘고 경이롭게 느껴졌다."는 소감을 밝혔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꿈꾸는 대로 만들어 드립니다!

건축공사는 신뢰와 실력으로, 크든 작든 믿고 맡겨주세요!

설계에서 시공까지 한번에 OK!

- 전문가들의 책임감 있는 시공!
- 거품없는 합리적인 착한가격!
- 철저하고 정확한 공사기간!
- 고객의 만족을 위한 Service 정신!

NEW CONSTRUCTION (신축) RENOVATION, ADU 전문

고객의 만족은 최우선으로 하는
ACCURATE CONSTRUCTION & REHAB, INC
 State Lic. 941446 / Lic & Bonded & Insured / ORANGE COUNTY 전지역
TEL. 562-991-8986 DAVID CHOI



NEW Construction



ADU



NEW Construction



ADU